

【오카야마의 봄을 알리는 사이다이 에요우】

안녕하세요. 오카야마 시장 오모리입니다.

지난 2월 20일에 히가시구의 사이다이 관음원에서 연례의 에요우가 개최되어 저도 가서 관람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계속 내렸었는데 저녁엔 비가 그쳐 안도했습니다. (역시 청명한 나라 오카야마) 회장은 보목 투하 1시간 전부터 경내를 도는 남자들의 열기로 고양감에 싸였고 밤 10시에 보목이 투하되면서 분위기는 단번에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복을 의미하는 2개의 보목에 몰려드는 약 만 명의 알몸 남자들의 모습은 웅장 그 자체로 정말 멋진 축제였습니다

또한 당일에는 전국에서 약 6천 명이 참가한 일본 상공 회의소 청년부 전국 대회가 있어서, 대회 후의 사찰장소로 에요우를 관람했습니다.

청년부 회장인 반씨 (우츠노미야시 출신) 도 「축제의 모습은 평소 텔레비전을 통해 볼 수 있었지만 언젠가는 직접보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드디어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는 등 대회에 참가한 분들도 에요우에 흥미진진한 모습.

실제로 많은 분이 관람해주시는 것을 보고 에요우가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프랑스 방송국에서 취재를 오는 등 외국인분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신문에 캐나다분이 「캐나다에서 이런 축제를 하면 싸움이나 사고가 잦아 곤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500년이나 계속되고 있는 것은 부딪히면서도 서로 간에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일본인이라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인터뷰한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3월에도 나라의 중요무형민속문화재 지정이 전망되는 에요우는 앞으로 더욱 주목을 모으는 이벤트가 될 것이다

오카야마시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촉진해 오카야마가 자랑하는 기묘한 축제 「사이다이지 에요우」를 폭넓게 하여 세계를 향해 적극적으로 광고해 나가도록 하고, 개인적으로는 투하한 후 보목의 움직임 알 수 있는 장치를 한다면 관람하시는 분들이 더욱 즐길 수 있고 또 더 뜨거워지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1일은 같은 사이다이지 지역의 「타이하쿠 우메마츠리 (매실 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만개한 500그루의 매실나무로 물들여진 광경은 정말 아름다웠고, 전일의 에요우와 함께 드디어 오카야마에도 봄이 오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봄을 즐겨주십시오.